

편견과 혐오, 위계와 차별로부터
 ✨ 자유로운 일상을 바라는 우리
 말이 쉽지, 막상 현실이 되기는 어렵다고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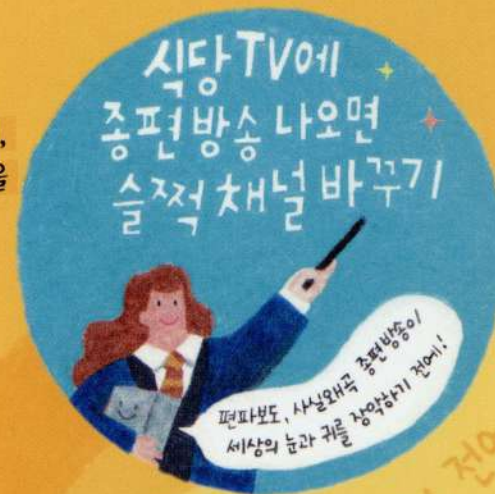
그래도,
 해보는 것과 해보지 않는 것은
 다를 거예요 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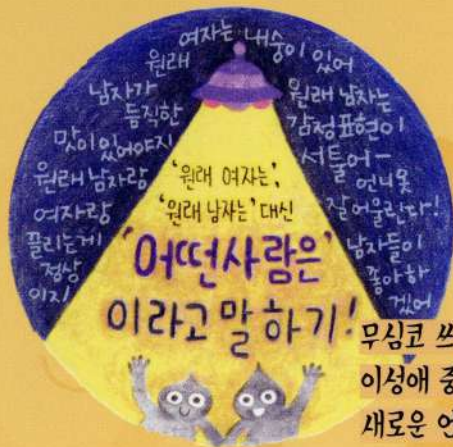
한국여성민우회



15분내 신속배달, 24시간 영업,
 주말택배, 대중교통 연장운행, 당일주문 당일발송.
 편하자고 만든 거지만, 사실 숨 막히지 않아요?

“얼마 전에 누가
 세월호 유가족을 욕하는데,
 종편 방송에서 나오던 말을
 그대로 하는 걸 보고
 깜짝 놀랐어요.”





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견, 이성애 중심 문화를 담고 있는 말들이 많지요. 새로운 언어 습관을 만들어 봐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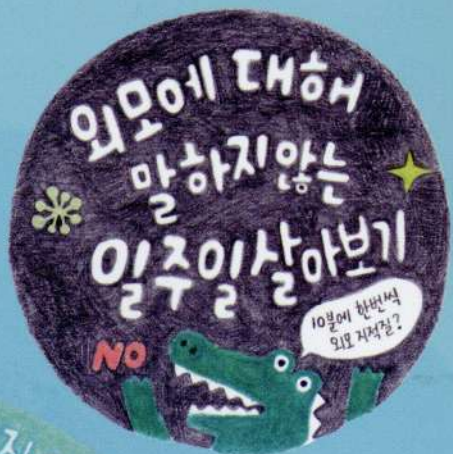


약자가 결국 지는 사회는
좋은 사회가 아니니까.
그리고 우리 좋은 사회에
살 권리가 있으니까.



- 파업과 집회 때문에 겪는 불편이 있다면 '불편해도 괜찮아!'
- 소액 후원금 보내기, SNS 응원 메시지 쓰기 등 작은 실천이라도 참여 해보기
- 시민단체 하나 후원하기
- 세월호를 잊지 않기. 끝까지 지켜보기, 진실을 요구하기.

끝없는 외모, 외모,
외모 이야기와 압박들.
창찬도 지적질도 말고
모두를 지치게 하는 이 공기에
숨 쉴 틈 한번 내어 봐요.



불편하지만
정색하기도 어색해서 허허
쓱쓱한 웃음으로 리액션 했던 경험들.
누군가를 차별하고
불편하게 만드는 농담이라면,
정색해도 괜찮습니다!



대중교통, 회사, 학교 등 내 주변에서 뭔가 피해가 일어났을 때,
누군가 한 사람만 나서서 피해에 공감하고 행동한다면?
분위기는 반전! 첫사람이 생기면 두번째 사람도 생긴답니다.

이런 문화는 이제 좀 달라졌으면 한다면,
세상이 좀 더 살만한 느낌이길 바란다면,
같이 해봐요!

사소한 성찰이 바꾸는 세상!
해보면 캠페인

해보면, 뭐가 달라질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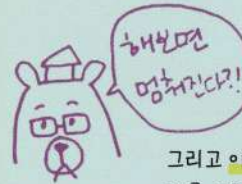
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,
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, 바로 나 자신.
그리고 곧 내 주변이 변하는 것을
발견하게 될 거예요.
작은 변화가 가진 힘을 믿어요!

해보면?
변명은?



캠페인 실천 후기

“해보면 달라져요”



- 늘 캠페인에 신경을 썼어요.

처음엔 눈치도 보이고 한소리 들을 때도 있었지만,
계속되니까 다들 그러려니 하더군요.

그리고 이제 사무실 전반적으로 퇴근이 빨라졌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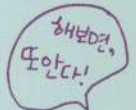
다른 사람들도 쓸데없이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되었어요. **[회원 집중]**

- 실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외모 지적보다

오히려 내 자신에게 필터 해제하고 막 얘기 하는 걸 발견해서 놀랐어요.

내 몸인데 뭐 어때? 라기엔 내 자신에게도,

그걸 듣게 되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. **[회원 호요]**



- ‘이 사람은 의사야, 이 사람은 얼마 전에 결혼했대.’

내가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설명하는 데 익숙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.

‘이 사람은 매주 꽃을 주문배달 하는 사람이야, 이 사람은 같이 사는 개를 사랑해.’

다른 방식의 소개도 가능하더라고요. **[회원 완선]**



- 친구가 ‘우리 아이는 남자인데 너무 소심하다’고

걱정을 하길래, “남자가 소심할 수 있지.

남자가 아니라 그냥 아이가 소심하다고 말하는 건 어때?”

하고 말해주었어요. **[회원 햇살]**

초면에 혹은 침묵이 어색할 때
습관처럼 이어지는 호구조사.
상대의 조건보다
“현재”에 관심을 가져볼까요?



외모, 나이, 결혼 여부 언급 안하려니
할 질문이 없다고요?
그래서 준비했습니다.

[해보면 기획단]이 제안하는 대안 질문 목록

- ★ 오늘 날씨가 0000네요. 이런 날씨 좋아하세요? (폭풍우 주의)
- ★ 여긴 어떻게 오시게 되었어요?
- ★ 걷는 것 좋아하세요?
- ★ 평소 가장 많이 놀러가가는 장소는 어디예요?
- ★ 즐겨 보는 웹툰은 무엇인가요?
- ★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?
- ★ 지난주에 찍은 사진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은요?
- ★ 요즘 당신이 가장 몰두하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가요?
- ★ 후원하는 단체가 있으신가요?
- ★ 우울할 때 기분 전환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나요?

더많은 질문 목록은
인우회 홈페이지에서
‘해보면’ 기획단을
검색하세요



해보면 캠페인은?

회원 모임과 전국 9개 지부에서 약 20회의 워크숍을 진행하여, 지금 우리가 성찰해야 할 일상 문화에 대한 총 83가지 의견을 모아 그 내용을 '함께 해보면 좋은' 실천 제안으로 만든 캠페인입니다.

Womenlink
한국여성민우회

여성이 웃는 세상, 평등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,
민우회 회원이 되어주세요!

후원 및 회원가입 02-737-5763 www.womenlink.or.kr
후원계좌 국민은행 813-25-0011-869 예금주 한국여성민우회
작지만 큰 의미 3천원 문자후원 #2540-3838

문자메세지에 번호를 입력 후
응원의 한마디와 함께 전송해 주세요.